

2012 7. 15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 아모스 7,12 -15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제 2 독서 : 에페소 1,3-14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 음 : 마르 6, 7-1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의 아모스 예언자는 기원전 700 년경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고 실제로 성전이 두번이나 허물어지는 참혹한 역사를 맞게 됩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에 하느님의 예언자로 활동 하였습니다. 이때는 나라안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고 더우기 사이비 예언자들이 판을 치곤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양을 치는 아모스를 부르시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 하여라.” 하고 지시하십니다. 베델의 예언자가

아모스에게 면박을 주자 아모스는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말씀 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보통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알아 맞히는 사람 또는 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Prophet 에도 그런뜻이 내포되어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는 지금 현재에 하느님의 뜻을 즉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서에서는 누가 하느님의 진정한

예언자인지를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누가 진정한 하느님의 예언자 일까요? 우리 귀를 달착지근하게 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LA 에는 한시간 남짓 거리에 많은 한인 성당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제 협의회에서 들어보면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성당의 미사에 참례치 않고 주일 마다 자기가 편한대로 이성당 저성당 옮겨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사를 쇼핑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예언자는 예수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미사중에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하여 미사 강론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부는 하느님말씀의 전달자로서 있는 것이지, 신자들을 모아들이기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독서의 아모스예언자처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지배계층과 민중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언자로서, 고향으로 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왜 그런 박해를 받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안에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 입니다. 사극을 보면 간신과 충신의 모습이 항상 등장합니다. 충신은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그 때에 정말로 필요한 진언을 하지만 간신은 그 반대의 의견을 임금에게 간언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곤 합니다. 성군은 충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만 폭군은 충신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신 이십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목을 베고 있는지요? 바로 이웃에 대한 험담을 늘어 놓을때,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또 나의 양심을 묻어 버릴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말씀 하십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있는 만물을 그리스도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하나가 되는것!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의견은 틀렸고 나의견 만이 옳다고 주장 한다면, 그래서 공동체에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 모두모두는 하느님께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동체안에서 마귀의 모습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구마경을 스스로 외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집에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안에서 물러가라!’** 하고 말입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 하셨다** 라는 대목이 여러번 나옵니다. 그러나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 하시면서 **“저는 더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한데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안에서 풍성 해 질것입니다. 공동체안의 각 구성원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하느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남보다 더 낫다고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하느님께서는 낱알과 쭉정이를 구분하실것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며, 이 미사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2-15

그 무렵 베텔의 사제 12 아마츠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들여라. 13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14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츠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15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3-14 <또는 1,3-10>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4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6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8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10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11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12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14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